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5월 6일(주일) 제1195호



## 교회와 이웃, 지역사회 위한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중앙대병원과 함께 헌혈행사 실시

오늘(6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이다. 이웃들을 미소 짓게 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이다. 오늘 교회 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촌역에서 서빙고 온누리교회,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이촌역, 양재역에서 양재 온누리교회,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양재역 환승주차장을 오가는 셔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교회주차장은 사전에 주차스티커를 발부받은 성도

들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70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36개월 이하 자녀 동반, 자녀 3명 이상, 헬로 연주자 등이 대상이다.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중앙대병원 헌혈센터와 함께 Acts29홀에서 오

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헌혈행사를 실시한다. 헌혈은 문진 및 신체검사, 혈액 검사, 헌혈, 휴식 순으로 진행되며 휴식시간을 포함해서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 헌혈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온누리교회는 2015년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성도들은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칭찬을 듬뿍 받으면서 지난해

부터는 분기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다. 회를 거듭할수록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부터는 분기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다. 회를 거듭할수록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 ‘샬롬, 예루살렘’

6월 2일부터 10일까지

역사적인 행사가 막 오른다. 한·이 성경연구소(KIBI)가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을 맞아 오는 6월 2일부터 10일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샬롬 예루살렘’ 대회를 개최한다. 성지순례, 긍휼사역도 실시된다.

‘샬롬 예루살렘’ 대회는 6월 7일 예루살렘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막 오른다.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을 축하하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다채로운 축하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문재숙 권사(무형문화재)와 이슬기 집사의 가야금 연주, 비보이팀 공연, 미디어아트팀 영상공연, 한국 전통음악 등을 준비 중이다. 유대인 상이용사회 합창팀도 무대에 설 계획이다.

성지순례는 성경 역사의 현장인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등지를 다니면서 땅 밟기 기도과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긍휼사역은 홀로코스트 희생자 가족(600만 학살 유대인 피해자), 장애인 센터, 고아원, 군대 방문, 사정이 어려운 정통파유대인 가정, 알리아 사역(이민자 유대인 가정), 믿는 유대인 가정과 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샬롬 예루살렘’ 대회에는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전화로 하면 된다. 선착순 100명이다.

한편 오는 5월 14일에는 이스라엘 독립기념 행사 및 ‘샬롬 예루살렘’ 대회 설명회가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 오후 7시에 진행된다.

문의: 02-792-7075-6

/ 이소정 기자

## 양재 화재대피훈련 실시

2부 예배 직후부터 3부 예배 시작 전까지

양재 온누리교회가 오늘(6일)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2부 예배를 드린 직후부터 3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실시된다.

오늘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2부 예배를 드린 성도들은 예배 광고시간에 화재대피훈련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고 축도가 끝난 다음 훈련에 참가하면 된다.

연막기로 만든 연기가 발생하면 본격적인 화재대피훈련이 시작된다. 이때 성도들은 경보방송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피장소인 지상주차장으로 대피하면 된다. 성도들이 대피하는 동안 119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모의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한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 확대 당회

일시: 5월 12일(토) 오전 6시  
서빙고 두란노홀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시무, 명예, 협동장로

온 누리에서 만난 온누리

# 세상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교회 김영수 목사

“7년 된 성도는 떠나라”는 말에 온누리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여전히 열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념이 없다. 온누리교회에서 배우고 경험한 노하우와 선교정신이 사역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만한 자선이 없다며 온누리교회에 무척 고마워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온누리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노하우와 선교정신을 바탕으로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두 번째 주인공은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수 목사다. 김 목사는 온누리교회 간사출신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은 대청댐 상류에 위치해 있다. 가끔 드라이브를 오는 관광객들과 낚시를 즐기러오는 사람들 말고는 찾는 이들이 별로 없는 조용한 마을이다. 댐을 개발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도시로 떠났고, 몇몇 주민들만 남아 고향을 지키고 있다. 대다수 농지가 수몰되어서 이렇다 할 전답도 없다. 주민들 대다수가 보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생계 없는 마을이다. 바로 그 회남면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사람이 있다. 가정불화가 극심하던 가정에 웃음꽃이 피게 하고, 고부갈등 문제도 해결해 주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다. 그 주인공은 회남교회 김영수 목사다. 김 목사는 12년 전 연고도 없는 바로 이곳 충북 회남면에 스스로 찾아와 주민들과 동고동락하고 있다. 김 목사를 좋아하지 않는 주민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대단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온누리교회에서 훈련 받은 모든 것을 활용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온누리교회에서 보고, 배우고, 익힌 시간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온누리교회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 간사에서 목회자로

김영수 목사는 온누리교회 간사 출신이다. 김 목사가 온누리교회에서 간사로 섬길 때 그를 모르는 성도들이 별로 없었다. 일 처리가 얼마나 정확하고 빨랐는지 탁월한 간사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1989년 온누리교회에 등록해서 2006년까지 간사로 섬겼으니 온누리교회에서 16년 동안 훈련을 받은 셈이다. 온누리교회를 섬기면서 중학생 시절부터 꿈꿔왔던 목회를 조금씩 준비했다.

“중학생 때부터 목회를 해야겠다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다보니까 계속 미뤄지더라고요.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온누리교회에서 섬길 기회가 생겼어요. 한 장로님이 디자인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교회디자인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김 목사는 민간기업에서 디자인관리를 했었다.

“남자 디자이너다보니 제가 험한(?)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고요. 그러면서 교회 섬기는 실력이 늘더라고요. 시설관리도 하고, 주차관리도



충북 보은군 회남면의 행복전도사 김영수 목사.

하고, 나중에는 목회지원실 살림도 했어요.”

김 목사는 온누리교회 간사로 섬기면서 장신대학교대학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공부를 병행했다.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6년 동안 공부했어요. 교회에서 배려해 준 덕분에 신학공부를 잘 마칠 수 있었어요. 회남교회에는 2006년 7월 부임했습니다.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김 목사가 당황한 이유는 이렇다. 한 목회자가 김 목사에게 회남교회를 소개해줬다. 성도 20~30명 출석하는 교회라고 들었는데 성도가 5명뿐이었다. 사정을 알고 봤더니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투고 나서 목회자가 야반도주를 했다. 그 빈자리에 김영수 목사가 부임한 것이다.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무작정 찾아가서 얼굴을 익히고 교제 했어요. 손에 뭐라도 들고 가면 문은 열어 주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돌아오기까지 2~3년 정도 걸렸는데 그 기간이 정말 힘들었어요. 목회가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아서 정말 많이 해맸어요. 그 힘든 순간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큰 힘을 주셨어요.”

8개월 동안 온누리교회 동작공동체 성도들이 회남교회를 찾아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 당시 노치형 목사(현 강동 온누리교회 담임)가 동작공동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리더십들과 상의해서 매주 한두 순씩 회남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로 결정했다. 찬양도 인도해주고, 설교시간에 화답도 해주고, 양손 가득 맛있는 음식도 가져오니 회남교회 성도들이나 김 목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됐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베푸는 모습을 보고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내 것’에 익숙하신 분들에게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베풀고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셨거든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헌신적인 섬김 덕분에 행하던 교회 예배당에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 거짓말 같은 변화들...

“3년 동안 헌신적으로 섬겼더니 교회를 떠나셨던 성도님들이 돌아오셨어요. 오히려 성도들이 더 늘었어요. 시골교회에서 남자 성도를 찾기가 어려운데 저희 교회에는 남자 성도

가 20명 가까이 있어요. 베트남에서 온 자매들도 10여 명 정도 있고요.”

김 목사는 심방을 참 열심히 한다. 주민들을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 심방하고 전도한다. 그런 김 목사의 눈에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주여성들이 눈에 띄었다. 수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불화로 고통 받고 있었다. 고부갈등도 심했는데 한 결혼이주여성은 “지옥가도 좋으니까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장 먼저 한국문화를 알리는 문화교실을 시작했어요. 서로 문화를 이해해야 될 싸우니까요.”

결혼이주여성들을 모아 놓고, 한국 요리, 문화, 언어, 컴퓨터 등을 가르쳤다. 10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쳤다. 그 시간 동안 거짓말 같은 변화가 생겼다. 가정불화가 심하던 다문화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집나갔던 여성들이 돌아오고, 고부갈등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더 기쁜 소식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한 달에 두 번씩 베트남어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안산M센터에서 은 전도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세요. 지난해부터 베트남어예배를 드렸는데 결혼이주여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설교 중에 질문까지 하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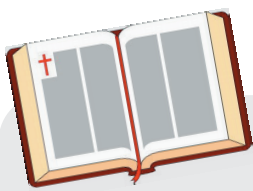
온누리교회 과천의왕공동체는 회남교회 아웃리치를 왔다가 만난 결혼이주여성들의 고향집으로 아웃리치를 가기도 했다. 시어머니가 죽으면 좋겠다던 A 자매와 특하면 남편과 싸우던 V 자매는 올해 세례를 받을 예정이다.

김 목사의 다음 전도대상은 차세대다.

“시골에서 차세대 전도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곳 주민들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세상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저도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려고요.”

김 목사는 늘 힘이 되어주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덕분에 정말 든든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온누리교회 성도라는 것을 늘 잊지 않는다고 한다.

“어디 교회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온누리교회 김영수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늘 기도해주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늘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 관계와 하나님 나라

롬 14:15~19

“주변적인 문제에 목숨 걸고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삶과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교각살우(嬌角殺牛)’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일부 작은 문제를 고치려다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다툼과 분열이 생기는 원인은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문제라기보다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 한 그루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멸시하면서 분열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공동체를 깨뜨리고, 서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하고 있음을 보고 로마서 14장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매우 주변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에서는 그 문제가 확대되어서 다툼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 사고로 보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싶겠지만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 대부분은 우상숭배에 사용되고 난 다음 나온 고기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한 번쯤 고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로마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우상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먹는 것은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느 쪽이 더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먹는 쪽입니까 먹지 않은 쪽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먹는 쪽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연약해서 우상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하고, 존재하지 않는 우상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골로새서 등 신약성경 전체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고만하지 말고 사 먹으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주변적이고 부분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절대적이거나 중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 문제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서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하는지입니다. 로마서 14장 전체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 판단하고 멸시하는 것이 더 큰 문제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1~3절).

믿음이 강해서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나는 먹는데 너는 왜 먹지 못하느냐?”며 먹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선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는 주변의 문제이지 핵심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판단하고 바라보느냐입니다. 서로 판단하고 멸시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그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성도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관한 문제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도 시대에 일어났던 교회들의 공통적인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로마 교회에 준 교훈과 같은 맥락의 교훈을 줍니다.

##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정말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으

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해로울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고전 8:7~9).

그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 연약한 지체가 근심하고 시험에 드는 것이라면 영원히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먹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믿음이 강한 것이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거나 근심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판단과 멸시가 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교회공동체가 다툼과 분열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문제가 그리스도의 몸됨, 하나 됨을 찢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분은 전체 속에서 봐야 합니다. 왜 많은 이단들이 생길까요? 이단이 생기는 공통적인 문제는 부분적으로는 진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언제나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만듭니다. 이단(異端)이라는 말은 ‘끝단’에 ‘다름 이’자를 씁니다. 모든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손과 발과 모든 지체가 조화를 이루듯이 진리의 모든 부분을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 아디아포라 VS 디아포라

종교개혁가들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이러한 관점으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는 이를 ‘아디아포라(adiaphora)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아디아포라는 헬라어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명하지도 않고, 금하지도 않은 영역에 있는 문화적인 것,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아디아포라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명하거나 금하는 것을 ‘디아포라(diaphora)’라고 불렀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모두

성경적으로 종교개혁을 추진했지만 아디아포라 문제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금하지 않는 이상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여러 전통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것은 수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교를 보면 로마 가톨릭의 관습과 의식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것은 전통과 문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도 열려있었습니다. 루터는 교회 음악에 있어서도 열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찬송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루터 자신이 직접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인간의 감정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교회 음악에서는 3도 이상의 음을 폐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는 음폭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당시로서는 도발적인 찬송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찬송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작사를 해서 찬송을 만든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칼빈은 오직 시편 말씀으로만 찬송을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찬송의 리듬도 감성적인 리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시편 찬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시편 찬송만 부릅니다. 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루터는 과거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미래에 대해서도 열려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루터가 칼빈보다 훨씬 폭이 넓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사용하는 종이, 쫓불, 기구, 심지어 성직자의 옷 등은 루터에게 아디아포라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성경에 명백하게 명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화적인 면에서 상당히 폭이 좁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목회자가 가운을 입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입는 것의 장점이 있고, 입지 않는 것에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지 않는 것을 정죄하거나 멸시하면 안 되고, 입는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입느냐 입지 않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체를 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판단하고 멸시하느냐입니다.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특별대담

가정사역본부와 함께

# 물 떠온 하인만 아는 감동 ‘가정사역’

부부의 탄생부터 원만한 부부관계, 고부·장서갈등 해소까지  
성경적 가정 원리 배우고, 행복 업그레이드, 갈등 회복은 덤

누구나 꿈꾸지만 아무나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다. 바로 ‘가정의 행복’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만 있다면 꼭 참여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바로 ‘가정사역’이다. 21세기 현대사회에서는 가정사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 가정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비혼(非婚)현상으로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고, 둘째, 결혼해도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며, 셋째, 고부·장서 갈등과 같은 위험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혼인·이혼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혼인건수가 26만4500건으로 1974년(25만9600건) 이후 4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혼인율(인구 1천명 당 혼인 건수)은 5.2%로 197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출산율 또한 몇 해째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올해 2월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만7500명으로 작년 2월보다 9.8%나 줄었다. 비혼과 저출산 원인은 다양하다. 취업난, 높은 집값, 과도한 결혼비용,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결혼만 하면 알콩달콩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여가도 고부·장서갈등 같은 위험요인들이 그 거룩한 이름 가정을 흔들고 있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자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다. 가정의 위기는 곧 사회와 나라와 교회의 위기로 직결된다. 그렇다면 가정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누리교회 최고의 가정사역 현장 전문가들이 뭉쳤다. 윤길중 목사(가정사역본부장), 조성한 장로(가정사역본부 대표장로), 박일면 장로(가정사역 대외협력팀), 한영희 권사(가정사역공동체, 서빙고권사회장), 박용익 집사(하가훈 팀장), 이성희 집사(젊은부부학교 팀장)가 그 주인공들이다.

/ 대담: 김남원 편집부장 one@onnuri.org  
정리: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윤길중 목사  
(가정사역본부장)



박일면 장로  
(가정사역 대외협력팀)



조성한 장로  
(가정사역본부 대표장로)



한영희 권사  
(가정사역공동체, 서빙고권사회장)



박용익 집사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팀장)



이성희 집사  
(젊은부부학교 팀장)

가정의 위기는 어제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요즘 들어 더욱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진단해주시죠.

윤길중 목사(이하 윤):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기 뜻대로만 하려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과 위기가 생깁니다. 자기중심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가지 않으면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한 장로(이하 조): “맞습니다. 신앙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배우는데 그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신앙인들은 교육 받을 기회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가정, 결혼, 부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가정의 위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용익 집사(이하 박):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라

지고,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폭이 좁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경제적으로 결부시키는 현상도 문제입니다.”

한영희 권사(이하 한): “비교의식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집 크기, 자동차 유무 등을 다른 부부와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로 인한 부부간의 불화가 생깁니다.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이를 수용하지 못하면 가정의 위기는 불 보듯 뻔합니다.”

가장 심각한 가정의 위기는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할까요?

이성희 집사(이하 이): “결혼을 안 해도 충분히 누리고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의 선물 중 하나가 성생활인데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의 성의식이 상

당히 개방적입니다.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성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혼의 소중함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많지 않은 것도 원인입니다. 결혼하면 행복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결혼해서 힘든 모습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 신경 쓰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지나치게 많아진다고 생각하니까 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랑이 부족한 것도 아쉽습니다.”

한: “사랑이 부족한 것에 덧붙여 인내가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손 시리고 추우면 바로 히터를 틀면 되는 인스턴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인내를 배울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대를 사는 청년들이 결혼은 곧 인내라고 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일면 장로(이하 박):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운동(무브먼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자녀를 출산해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얻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발견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결혼을 할 수 없는 현실이 문제 아닐까요?

익: “공감합니다.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배우자를 교회 안에서 찾기 원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교회 안에서는 성비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넌크리스천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문제를 경제적으로 귀결시키려고 하고, 결혼은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서 결혼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조: “결혼제도의 문제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결혼예배와 사회의 결혼식이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의 주인공은 부모입니다. 신랑신부가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는 결혼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신랑신부가 알아서 결혼식을 준비하도록 맡기고 부모들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익: “커플이 되기 전부터 결혼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싱글일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배우자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어떤 가정을 이뤄야 하는지 등 올바른 성경적 결혼기준을 갖도록 도와주면 결혼에 대한 인식이 더욱 긍정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한:** “성경적 결혼문화에 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결혼의식을 변화시키고, 정부에서는 현실적인 지원을 해주고, 교회는 내면적인 것을 다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꿈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자녀들이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시키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의 배우자가 신앙이 없다면 결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면:** “저는 경제적 어려움이 눈에 보여도 결혼시킬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결혼을 한 경우이거든요. 아내와 넉크리스천과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결혼은 ‘성품이 좋다면 가능하다’ 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며느리(아내)가 들어오면서 제사를 추도예배로 바꾸셨거든요.”

**이:** “저는 제 딸이 20대에 꼭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기반을 이룬 다음에 하는 결혼은 만혼과 난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반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려하면 가정의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기반을 먼저 이루고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익:** “대학청년부 멘토님들이 넉크리스천과의 결혼에 대해 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적어도 결혼 후에는 손잡고 교회에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넉크리스천과의 결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혼 전에 성경공부나 예배 등 신앙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전제조건 혹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해도 문제입니다. 원만한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한:** “제가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에서 배운 것은 결국 결혼생활이 영적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갈등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극복해야 합니다.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이상과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결혼생활, 원만한 부부관계에 대

한 교육과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성경적 가정의 원리는 결국 남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깨닫게 하고, 사랑과 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적용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가정사역입니다. 부부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애니어그램, DISC(행동유형검사), MBTI(심리검사) 등의 상담 프로그램만 실시해도 부부관계가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본질적인 부부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머리로만 이해되고 가슴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윤:** “부부관계는 결국 권력관계(주도권 싸움)인데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엡 5:21),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입니다. 최고의 계명은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눅 10:27)입니다. 결정권을 누가 갖느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고부·장서갈등, 부양문제 등 가정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한:** “옛말에 시집살이 고되게 한 며느리가 엄한 시어머니 된다고 하잖아요?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습니다. 간섭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면:** “저는 결혼하고 8년 동안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5년 동안은 장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이 커서 결혼해서는 3년을 데리고 같이 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가) 시집살이를 할 때 제가 남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효자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요구를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살 때는 아내와 장모님이 가끔씩 크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뼈가 마른다고 하는 말을 심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15년차에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에 참석했는데 바로 그때부터 우리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일순위가

고, 내가 영원히 의지할 분은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고 선포하니까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조:** “저도 결혼하고 6개월을 부모님과 같이 살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큰 실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힘들어 했습니다. 저는 이성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고, 아내는 감성적인 이해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훈련을 받으면서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온전히 떠나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저는 자녀가 부모를 왜 떠나야 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온전히 떠나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가 떠나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떠남과 떠나보냄의 성경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가정의 탄생부터 원만한 부부관계, 고부·장서갈등 해결까지 가정사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실로 엄청납니다. 가정사역의 비전과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부모)에 맞는 가정사역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이러한 교육을 받았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배움에는 늦은 나이가 없다고 합니다. 실버세대를 위한 가정사역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면:** “저는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를 경험한 이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사역입니다. 가정사역 이야말로 평생을 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 가정사역 대외협력팀이 만들어지면서 지역 교회와 캠퍼스 교회에 가정사역을 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정에도 가정사역을 보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사역은 종족과 지역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필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익:** “온누리교회 모든 가정들이 가정사역 프로그램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사역을 이룬 위기의 부부를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전부 아닙니다. 물론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부들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러나 가정사역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예비해두

신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행복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가정이 누릴 수 있게 하느냐입니다.”

**이:** “온누리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가정사역이 필수 프로그램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누리고,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 “가정사역은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부의 행복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가정사역에 동참하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가꾸는 원리와 방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따라서 가정사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가정을 이루지 않은 성도들을 위한 교회의 배려도 필요합니다. 가정사역을 강조하다보면 도리어 기러기아빠, 고연령 싱글, 사별자 등 혼자인 성도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정사역은 모든 성도들을 품어야 합니다. 온누리교회 가정사역은 역사가 깊고, 대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가정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이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감동이 있듯이 가정사역 현장에 오면 감동과 회복, 기적을 맞볼 수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사역에 동참하고 그 감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02-3215-3268**

#### 5월 개강하는 가정사역 스쿨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120기  
대상: 온누리교회 등록 부부  
일시: 5월 19일~6월 10일  
매주 토요일(1박2일)  
장소: 안성 에벤에셀교회 수양관  
문의: 010-5471-0854

DRS 이혼자회복학교 31기  
대상: 이혼위기 및 별거중인 남녀, 이혼남녀  
일시: 5월 26일~6월 23일  
매주 토요일 5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2539-5665

# 강연기 형제와 보석 같은 동역자들

## 매주 서울역 노숙자들에게 통닭 135마리 대접

여기 또 한 명의 작은 예수가 있다. 사비를 털어 노숙인들에게 통닭을 대접하고 있는 청년이다. 그 주인공은 여호수아공동체 강연기 형제다.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서울역 2번 출구 앞 공터에 가면 그 아름다운 청년을 만날 수 있다. 강연기 형제가 노숙인들에게 대접하는 통닭은 맛도 맛있지만 양도 엄청나다. 매주 통닭 135마리를 대접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 덕분이다. 양재 온누리교회 이웃사랑팀, 여호수아공동체, J4U공동체, 남대문5가공동체 지체들이 강연기 형제와 함께 섬기는 보석 같은 동역자들이다. 강연기 형제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 써내려가는 예수바보행전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통닭을 기다리는 노숙자들(위)과 강연기 형제(아래 왼쪽), 노숙자 위해 기도하는 이웃사랑팀(아래 오른쪽).

“온다!”

지난달 28일 오후 8시 서울역 앞 공터에 앉아있던 한 노숙인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그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던 노숙인 14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집중됐다. 저 멀리서 강연기 형제가 큰 박스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그가 다가올수록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다. 입안에 군침이 고였다. 나도 이런데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은 노숙자들은 오죽했을까?

박미숙 씨는 매주 이곳에서 통닭을 받아간다. 지난해부터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다. 그런데 그녀는 그 통닭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우리 딸이 통닭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매주 이곳에서 통닭을 받아다가 딸에게 가져다 줘요. 저는 안 먹어도 괜찮아요. 딸이 먹는 모습만 봐도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고기 먹을 기회가 없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나눠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강연기 형제는 1년 전부터 사비를 털어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역 주변 노숙자들에게 통닭

을 대접하고 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됐을까?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 가려면 서울역을 지나가야 했어요. 학교 가는 길에 노숙인들을 자주 봤는데 자꾸 시선이 가고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같아요.”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

그는 어른이 돼서 돈을 벌면 꼭 노숙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야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직장생활을 시작했을 때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강연기 형제는 거침없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곧바로 실천했다. 큰 가방에 빵과 음료를 가득 담아 와서 서울역 주변 노숙자들에게 나눠줬다. 한 노숙자가 한 말이 그의 열정에 불을 붙였다.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는데... 정말 고마워.”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가 노숙자들을 섬기는 일을 그만둘 수 없게 만들었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다. 정말 순수하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쳤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동역자가 필요했다. 강연기 형제는 동역자를 찾기 위해 양재 온누리교회 여호수아공동체를 찾아갔다. 그런데 당시 여호수아공동체는 양재 이웃사랑팀과 함께 남대문5가 쪽방촌을 섬기고 있었다. 강연기 형제도 쪽방촌 사역에 합류했다. 그 와중에도 서울역 노숙자들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을 잊은 적이 없다.

“그래도 쪽방촌 사람들은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은 있잖아요. 노숙자들은 그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노숙자들을 섬기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지난해 5월 다시 서울역을 찾았다. 이번에는 통닭을 들고서 말이다. 그가 통닭을 선택한 이유는 노숙자들이 고기를 먹을 기회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통닭과 음료까지 합하면 한달 지출만 250만 원이 넘는다. 꽤 부담이 되는 금액인데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됐다.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하잖아요? 나눴도 똑같아요.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맛을 느끼면 매출 수가 없어요. 늘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습니다.”

노숙자가 회복되어 또 다른 노숙자 섬기는 꿈

혼자 버티고 버티다 진짜 동역할 사람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쪽방촌을 함께 섬기는 공동체 지체들에게 연락을 했다. 한두 명씩 동역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더니 J4U 공동체 소속 청년들도 합세했다. 그런데 2%가 부족했다. 영혼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이였다.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쪽방촌 사역을 함께 했던 권사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권사님들이라면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올해 3월부터 양재 이웃사랑팀 김희숙 권사, 김경희 권사, 민경애 집사도 노숙인 섬김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강연기 형제를 필두로 여호수아공동체, J4U공동체, 양재 이웃사랑팀, 남대문5가공동체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

그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만 되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노숙자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동무가 되는 역할은 양재 이웃사랑팀 전담이다. 처음 만난 노숙자도 양재 이웃사랑팀과 대화 몇 마디 나누면 세상 둘도 없는 친구가 된다. 오후 8시가 되면 강연기 형제가 통닭을 가져온다. 양재 이웃사랑팀, 여호수아공동체, J4U공동체 청년들이 함께 그 통닭을 포장한다. 노숙자들에게 통닭을 나눠주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남대문5가공동체 예배를 소개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다. 한시라도 빨리 통닭을 받고 싶은 노숙자들의 불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 그럼에도 J4U공동체 전수진 형제는 기도하는 것을 생략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

“노숙인들을 만날 때마다 허기진 모습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청년들이 이 아름다운 사역을 주도할 수 있는 밑바탕에는 양재 이웃사랑팀의 격려와 응원이 있다.

“양재 이웃사랑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서 이 사역의 중심을 잡아주시니까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이 사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세요.”

양재 이웃사랑팀에게 청년들은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최고의 동역자다. 함께 할수록 에너지가 샘솟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

“청년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청년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보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청년들을 의지하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연합사역의 열매도 풍성하다. 남대문5가공동체 주일예배에 서울역 주변 노숙자 3명이 찾아왔다. 이 사역의 꿈이자 비전 이 바로 이것이다. 노숙자가 회복되어 또 다른 노숙자를 섬기는 사역자를 양성하는 꿈을 꾸고 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서울역 노숙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그 노숙자들이 또 다른 노숙자를 섬기는 사역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후 9시가 훌쩍 넘었다. 준비한 통닭도 다 떨어졌다. 몸도 녹초가 됐다. 바로 그때 한 노숙자가 입가에 미소를 가득 머금고 이렇게 말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 “당신이 바로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 5월 12일 개강

선교는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일까? 결코 아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선교에 대한 심각한 편견이다. 그렇다면 전문인 선교는 어떨까?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만 유용하게 쓰임 받지 않을까? 이 또한 결코 아니다. 전문인 선교에 대한 대단한 편견이자 오해이다. 전문인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전문인 선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스쿨이 있다.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 Onnuri Professional Mission School)다. 5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 2층 온유희에서 진행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전문인 선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제3세계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질병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의료선교사들이다. 의료선교사들이 전문인 선교의 탁월한 모델은 맞다. 그렇다고 의사들만 전문인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평범한 직장인도,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전문인 선교를 할 수 있다. 바로 당신도 전문인 선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교사출신 A 성도는 출근하는 게 너무 괴롭고 싫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 좋은데 매일 출근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일을 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에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에 입학했는데 그 이후 삶이 달라졌다.

“교사라는 직업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귀한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저 먹고 사는 도구인줄만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교사라는 직업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A 성도는 선교지 학교나 유치원의 커리큘럼을 점검해주고, 방학 때에는 직접 선교지를 방문해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A 성도처럼 누구든지 자신의 직업을 활용해서

전문인 선교사로 기능할 수 있다. 생각을 전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재능을 선교지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에는 의사, 변호사, 법무인, 간호사, 디자이너, 교사, 외국 어전문인, 기술자, 주부, 평범한 직장인까지 250여 명의 성도들이 다녀갔다. 수료자 중에서 해외로 전문인 선교를 떠난 성도들도 있고, 국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인 선교를 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

### 선교에 관심 있다면 누구든지

온누리전문선교학교에서는 전문인 선교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배우고,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쳐 준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곧 선교지이고, 나의 직업과 재능이 선교도구라는 것을 확실하게 일깨워 준다. 이외에도 NGO선교, 비즈니스선교, 미디어선교, 4차 산업혁명시대와 선교, 문화, 농업, 교육 등 다양한 선교모델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는 “선교에 관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에서는 직업과 달란트를 활용하는 선교를 배울 수 있다.

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전문인 선교사가 될 수 있다”면서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에 참여해서 자신의 직업과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기간: 5월 12일~ 9월 15일까지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장소: 도곡교육관 2층 온유희  
문의: 02-3215-3753

| 일시     | 강의 내용                           | 강사                                             |
|--------|---------------------------------|------------------------------------------------|
| 5월 1일  | 온누리선교론 및 교회론, OT                |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 손순동 선교사                      |
| 5월 19일 | 현대선교 동향과 전문인선교<br>지역연구 리서치      | 조샘 선교사(인터서브코리아)<br>손원민 박사(SFK 대표)              |
| 5월 27일 | 기독교 세계관, 전문인선교                  | 송동호 목사(IBA 사무총장)                               |
| 6월 2일  | 로잔운동과 전문인선교                     | 최형근 교수(서울신학대학교)                                |
| 6월 9일  | 디아스포라 전문인선교(이주민, 난민)            |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br>전영수 장로(SWM 담당)               |
| 6월 16일 | 총체적 선교, 지역개발 NGO                | 박준범 선교사(분당사랑의병원)<br>박대호 장로(안성농장)               |
| 6월 23일 | Business as Mission<br>성경적 재정원칙 | 이동민 교수(Wheaton Collage)<br>김진수 장로(김성 대표)       |
| 6월 30일 | 4차 산업혁명시대와 선교<br>미디어            | 전생명 선교사(전 FMnC대표)<br>함태경 본부장(CGNTV 경영전략본부장)    |
| 7월~8월  | 아웃리치                            | -                                              |
| 8월 25일 | 문화(체육, 교육)                      | 박지현 선교사(중동 Y국 국가대표탁구감독)<br>오성연 장로(송도 NYU 석좌교수) |
| 9월 1일  | 농업공동체                           | 강동진 목사(보나롬)                                    |
| 9월 8일  | 온누리융합선교와 전문인선교, 아웃리치 보고         | 신현승 장로(온누리선교본부과위원장)                            |
| 9월 15일 | 수료 및 Home Coming Day            | 김도균 목사, Paul Song 선교사                          |

### 선교칼럼

‘모든 족속’, ‘열방’, ‘만민’, ‘땅 끝’은 성경에서 자주 보는 표현이다. 내가 사는 이 나라(아프리카 E국)에는 80개가 넘는 민족이 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마지막 명령을 주신 예수님은 나에게 두 가지 말씀을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셨다. “민족으로 제자 삼고 가르치라”는 마태복음 28장 말씀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하신 마태복음 9장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나는 한 번도 “아프리카로 가라”는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 다만 일꾼을 찾는데 지원자가 없는 곳에 자원했다. 대학생 시절 성경을 보면 볼수록 목사님과 선교사님들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집사로 세움을 받은 스테반과 빌립은 누가 시켰다는 말도 없는데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사역했다.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는 좋기도 하고 아쉽

기도 하다. 알차고 귀한 내용으로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니 좋는데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들만 따로 모이는 것 같아 아쉽다. 그런데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는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들만 들어야 하는 고급 선택과목이 아니다. 전문인선교학교는 자신이 가진 직업과 특기를 가지고 비슷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슴 뛰는 내용들을 배우는 소중한 장이다. 하지만 ‘전문인’이라는 표현이 장벽이 되어서 ‘나는 전문인이 아니니까 못 가겠구나’고 생각하게 할 우려가 있다.

선교지에 와 보니 너무 전문적인 성도들은 자기 영역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고, 사역이 그 분야에만 국한되어야 하니 오히려 동역하기가 불편할 때가 적지 않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직업인의 길을 택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학자였던 사도 바울은 그의 전문 분야를 버리면서까지 사역을 감당하기 편한 직업인의 길

을 간 것이다.

주님의 부르심은 다양하다. 그 어떤 직종이나 특기 어느 것 하나도 선교에 도움이 안 될 것이 없다. 일꾼이 필요한 것이지 전문직 일꾼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전문인 선교에 뛰어들면 다음에는 프로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인 선교는 ‘선교 전문인’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 같다.

나는 사도 바울이 만들었을 텐트를 보고 싶다. 그는 “텐트를 선교용으로 만든 것이니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사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텐트 제작에도 탁월함을 보였을 것이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시작도 끝도 성령님이 하신다. 결국 선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것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온누리교회에서 20년 넘게 배워온 진리이다.

내가 대학생 때 ‘온누리성령축제(OHSC: Onnuri Holy Spirit Celebration)’라는 집회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적이 있었다. 당시 하용조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강의가 아직도 생생하다. 선교지라고 불리는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선교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증인으로 부르신다. 충성된 증인으로 살다보면, 아니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괜찮다.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부끄럽게나마 소망했던 나 같은 사람도 불러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아름다운 특권의 자리로 불러주시길 것이다. 선교는 특권이며 누리는 자리다. 주님의 마음이 계신 곳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이다.

/ 노아 선교사(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 3기, 외과의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전문위원)

온누리세계관학교 북콘서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주 특별한 강의를 있었다. 지난달 25일 온누리세계관학교가 개최한 북콘서트에서 C. 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번역한 장경철 교수(서울여대 기독교학과)가 그 책의 내용과 의미를 논했다. C. 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 전달하고자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장 교수의 강의를 요약·정리했다.

/ 편집자 주



장경철 교수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C. S. 루이스는 책 〈순전한 기독교〉를 왜 쓰게 되었을까? 1941년 BBC방송 담당자 제임스 웰치(James Welch)는 C. S. 루이스에게 편지를 보냈다. C. 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었고, C. S. 루이스의 생각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그해 C. S. 루이스는 영국 BBC 방송에서 네 차례 강연을 하게 된다. ‘옳고 그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그리스도인의 행동’, ‘인격을 넘어서’가 그 주제였다. 이 강연을 토대로 집필된 책이 바로 〈순전한 기독교(Mere Christianity)〉다.

〈순전한 기독교〉도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옳고 그름’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낭패감 문제를 다루고 있다. 2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는 그 질문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개략적 구조를 서술하고 있다. 3부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여러 도덕들을 언급하면서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을 다룬다. 4부 ‘인격을 넘어서’에서는 기독교신앙을 다루되 신학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했다.

### 교만 VS 겸손, 이원론 VS 기독교적 입장

“저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C. S. 루이스를 이해하려면 이 문장을 기억해야 한다. 사실 어둠을 보는 것도 빛의 기능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자본이나 자산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빛부터 주신다.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책 〈순전한 기독교〉중에서 내 마음을 가장 사로잡은 부분이 있다. 바로 제 3부 ‘가장 큰 죄’에 나오는 교만과 겸손에 대한 내용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과 신적인 우정을 맺는 여정이다. 우정을 맺기 위해 꼭 필요한 방법이 겸손이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다. 먼저 교만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이 악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안에 동일한 악이 관찰될 때 상대방을 더욱 미워하며 상대방에 대해서 더욱 분노하게 된다. 만약 상대가 매우 교만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화가 난다면 나 또한 교만한 것이다. 둘째, 본성에 의해서 경쟁적이다. 자리는 부족하고 지원자가 많아서 경쟁을 한다면 이것은 공정한 경쟁이다. 그러나 교만은 필요하지 않은 경쟁을 계속 유발시킨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인정받



장경철 교수가 C. 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못마땅하게 여기고, 내가 더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교만이다. 셋째, 본질적으로 적대감을 형성한다.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결코 우정이 형성될 수 없다. 우정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가에 따라 자신이 겸손한 지, 교만한 지를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회사나 가정에 들어갔을 때 우정이 형성되고 활성화되면 당신은 겸손한 사람이다. 또한 칭찬을 받았을 때 기뻐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다. 칭찬을 들었을 때 고마운 사람들이 생각나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것을 오래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면 건강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과도하게 낮추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자연스럽게 잊을 수 있는 사람이다. C. S. 루이스는 겸손한 사람을 이렇게 묘사했다.

“아마도 그가 주는 인상은 여러분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2부에서는 C. S. 루이스에게서 타종교를 대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다. 하나는 타종교는 최소한 진리의 단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가 정답이지만 오답 가운데 정답에 근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하기 원한다면 상대방을 전도 대상으로 여겨야지 전투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관점에서 볼 때 먼저 상대방부터 기본적 신뢰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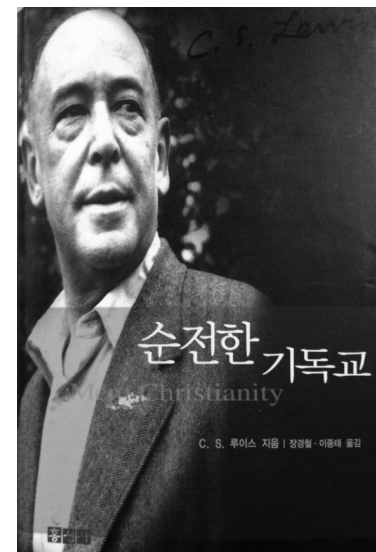
사실 C. S. 루이스도 무신론자였다. 그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어떻게 이러한 부조리가 있는지를 궁금해 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후로는 세상의

어둠과 부조리함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로 초점이 바뀌었다.

여기에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 어둠, 무의미함, 부조리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 어둠을 느끼는 무의미와 부조리 때문에 고통 받는 인간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를 존중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바로 ‘이원론’과 ‘기독교적 입장’이다. 이원론은 모든 것의 배후에 선과 악의 힘이 있다고 말한다. 두 개의 힘이 각각 독립적이고 동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선악은 동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이 선으로 존재하는 방식과 악이 악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 예를 들어 지성은 선한 것인데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 하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한다. 악은 선이 부패한 형태에 불과하다. 결국 이원론은 존재할 수 없다. 반면 기독교는 어둠의 권세가 본래 선하게 출발했지만 지금은 반역하는 자리에 있다고 본다. 또한 이 악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회복될 존재라고 말한다. 이것이 이원론과의 차이점이다.

### 기독교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

3부에서는 4가지 기본덕목인 사려분별, 절제, 정의, 용기와 3가지 신학적 덕목인 믿음, 소망, 사랑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 ‘기독교에서 이해하는 사랑’에 대한 논의가 인상적이다. 그 사랑이 무엇일까? 결혼을 예로 들어보자. 두 사람이 일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한 것과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약속하게 만드는 것은 감각과 감정이지만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것은 의지로서의 사랑이다. 의지에 의해서 유지되고, 습관에 의해서 강화되고, 은혜에 의해서 견고하게 되는 연합인 것이다. 이것은 결혼뿐 아니라 직업, 목표 등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아주 멋진 바닷가에 갔다. 바라보기만 해도 설렌다. 다음날



또 갔다. 그런데 별로 설레지 않는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수영을 배워야 한다. 바다 안에서 호흡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처음에 맞본 낭만과는 다르지만 구석구석에 작은 낭만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나 무관심에도 지치는 법이 없다.

C. S. 루이스가 생각하는 기독교 핵심은 수명이 긴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것을 4부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은 고갈되지 않는다. 우주에 있는 것은 모두 고갈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생기의 공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하나님 안에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흐름, 사랑의 역동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자. 누군가 C. S. 루이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수백만 명의 기도를 동시에 듣느냐 하는 점입니다.”

작가와 작중 인물 사이의 관계를 보자. 작가는 소설을 쓸 때 소설 속 가상의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작중 인물에 대해 꾸준히 생각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이와 같다. 하나님은 우주의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실 여유가 무한히 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고,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 안에 진정한 내가 있다. C. 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를 찾으시면 그를 만날 것이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 황숙희 권사의 백수(白壽)로 이어진 삶과 신앙의 지혜서 6

### 감추어진 보화

나의 고향 시골마을에 거지 가족이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모두 동냥으로 먹고 살았다. 그들은 서너 동네를 다니며 먹을 것을 얻어 갔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에게 친절했고, 정을 나누어 주었다. 내 기억에 그들은 별 고민이나 불만 없이 거지라는 삶의 궤도를 숙명처럼 인정하며 세상을 살았던 것 같다. 단 한 번이라도 궤도수정을 결심했다라면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잃어버린 인생을 살았다.

자기 집 지하에 엄청난 보물을 두고도 몰라서 거지처럼 산 사람이 있다. ‘에이즈’라는 농부다. 미국 최대의 유전 중 하나인 텍사스 주의 에이즈 유전이 개발되기 전 그는 정부지원금을 받아가며 연명하는 신세였다. 바로 자기 집 지하 1천여 피트에서 하루에 12만 배럴의 기름이 나오는 유전이 있는데도 유전 탐사팀이 와서 유전을 발견하기 전까지 모르고 살았다. 상실의 인생이었다.

얼마나 많은 소중한 보물이 무지(無知)와 미지(未知) 속에 사장되어 있을까? 내게는 거지 삼대 같이 숙명처럼 정주(定住)해 있는 상실한

영역은 없을까? 이 껍질을 깨고 허물을 벗고 코페르니쿠스적이며 혁명적인 역전을 이루기 위해 수정할 삶의 궤도는 없을까?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어둠을 뚫고 박사가 된 헬렌 켈러는 불모의 인생 속에서 보석을 캐내었다. 볼 수 없고,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과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다.

쓰레기더미에서 장미를 피게 하고,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뽑아내고, 원석을 깎고 쪼아 천사를 만드는 조각가의 창조와 개발이 내 인생의 영역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모세는 믿음이라는 지팡이로 사막의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하였다. 링컨과 에디슨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였지만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이 되고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다.

인생의 광산을 개발하자. 쓰레기더미 같은 인생인가? 장미를 심어보자. 곰팡이 인생인가? 페니실린을 뽑아보자. 사막의 돌맹이 같은 인생인가? 신앙으로 쳐서 생수가 터지게 하자. 내 인생 원석에서 천사를 뽑아내게 하자. 기적

을 만들자. 자신을 파보자. 그 속에 시인도, 상자도, 위인도 묻혀 있을 것이다. 버려진 인생, 도적맞은 인생 폐광에서 다이아몬드를 캐는 슬기와 신앙을 배우자.

#### 사랑의 노래

감사는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 감사는 신앙의 표현이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사랑은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친절은 사랑이다. 친절만큼 힘이 되는 것은 없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아버지는 촬영장에서 아들에게 “세계적인 감독이 될 것”이라고 칭찬해 주었다. 그 칭찬은 그가 세계적인 감독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 칭찬하면 기가 산다.

믿음, 격려, 애정으로 모든 일을 사랑하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사랑을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라고까지 했다. 사랑은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다. 부지런하고 성실함은 값없는 보물이고, 진실함은 몸을 보호하는 도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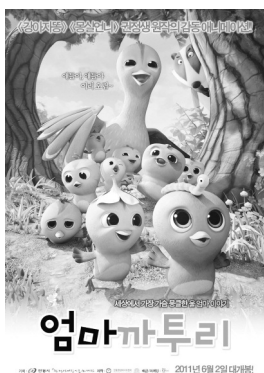
#### 품위 있는 여성

우아하고 품위 있는 내면을 가진 여성에게는 영원한 고향 같은 아름다움이 풍겨 나온다. 여성에게는 모성애가 있다. 여자는 생명을 잉태하고, 자녀를 기르는 끝없는 위안을 주는 대지다.

기름진 대지에서 수목이 무성하게 자라듯 인간은 여성의 품에서 자라고 살아가며 역사를 창조해 나간다. 아름다운 여성, 본능적으로 모성을 가진 여인이 인류 역사의 중대한 대목에서 중대한 역할을 감당해 왔다. 백만의 청중 앞에서 사자후(獅子吼)를 하는 남성의 연설이 역사의 방향타를 잡고 있듯이 아름다움을 다듬고 사랑을 심어가는 여자의 마음 역시 역사의 방향타를 쥐고 있다. 사랑은 숙명적으로 아름다움과 돌봄 가운데 자라는 수목이기 때문이다.

## 온 가족이 함께 봐야 할 단편 애니메이션 ‘엄마 까투리’

### 사랑의 원형(原形)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축하할 수 있는 기념일들이 많다. 세상 문화들도 ‘가족’과 ‘가정’에 초점을 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부모들은 어린이날이 되면 어린 자녀들을 위해 선물과 이벤트를 준비하고, 자녀들은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카네이션을 만든다. 우리 모두에게 5월은 가족을 돌아보며 가정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시간이다.

가족과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그려지는 이미지나 느낌이 있다. 따뜻함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추억 속 그리움일 수도 있다. 또 같은 그리움이지만 후회 혹은 아쉬움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어떤 이에게는 아

픔이자 회복되어야 할 깊은 상처일 수도 있다. 이 다양한 이미지들의 정체가 바로 가정을 이루는 원리 ‘사랑’이다.

자녀 세대에게 사랑을 어떻게 전달해줄 것인지가 부모들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가장 먼저 부모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매일 삶 속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실제적인 희생과 인내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를 고민한 한 아동 문학가가 있었다.

2005년 봄, 어느 출판사 앞으로 한 권의 원고가 도착했다. 이 원고는故 권정생 작가가 쓴 〈엄마 까투리〉라는 동화책이다. 초등학교 권장도서이기도 한 이 책은 2011년 극장용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다. 2014년에는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제작되어 많은 어린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엄마 까투리의 돌봄 속에서 9명의 어린 꿩 자녀들이 숲 속에서 신나게 놀면서 하루하

루를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보급자리에 큰 불이 난다. 엄마 까투리는 혼자서 날아오를 수 있었지만 9명의 자녀들을 품에 안고 불이 튼타지 못하도록 꼭 감쌌다. 뜨거운 불길에 엄마 까투리를 덮쳤지만 꼼짝하지 않는다. 불이 지나가고 까맣게 그을린 엄마 까투리 품에서 9명의 새끼 꿩들이 무사히 살아남았다. 엄마 까투리의 죽음이 실감 나지 않는 듯 어린 꿩들은 들판을 돌아다니다 엄마 품에 돌아와 함께 모여 잠을 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적만 남은 엄마 까투리의 품을 떠나지 않는다. 어느덧 자라난 어린 꿩들이 죽은 엄마 까투리 자리를 찾아와 향기를 느끼며 그리움을 표현한다. 엄마 까투리의 사랑을 깨달은 꿩들은 그제야 하늘 위로 날아오른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이기적인 본성을 이겨내고 인내와 희생을 담아낸다. 이 놀라운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보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요일 4:9).

아들을 주신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부모가 보여주는 사랑의 원형(原形)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가정의 달이다. 자녀들과 함께 짧은 단편 애니메이션 ‘엄마 까투리’를 보는 것이 좋겠다. 부모의 사랑,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작가의 이야기 속으로 온 가족이 함께 들어가 보기를 바란다.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권한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이끄시며, 끝까지 보살펴주시는 하나님께 온 가족이 다 같이 감사기도를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



변대섭 목사  
(차세대 꿈이자라는땅)



지난달 15일 J4U공동체가 맞춤전도집회를 실시하였다.

## 아주 특별하고 풍성한 전도집회

양재 열린새신자예배, 대학청년부 개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아주 특별하고 풍성한 전도집회가 이어진다.

양재 열린새신자예배는 오늘(6일)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부모초청 전도예배를 드린다. 오늘 예배는 윤형주 장로 초청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믿지 않는 부모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5월 13일에는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10대 자녀와 부모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 이날 게스트는 <침바지>의 저자 박상학

목사다. 5월 20일에는 ‘거룩한 동행’을 주제로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전도예배가 열린다. 뮤지컬 배우이자 가정사역자 임진웅, 김태희 부부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5월 27일에는 ‘건강한 동행’을 주제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석하는 전도가 열릴 예정이다. 배우 김선정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대학청년부에서도 공동체별 맞춤 전도집회 준비가 한창이다. 허브공

동체는 5월 11일 ‘사랑해’, Pole2공동체는 5월 26일 ‘더 테이블’, 갈렙공동체는 5월 13일 ‘Love letter’를 주제로 맞춤전도집회를 실시한다. 여호수아공동체는 오늘(6일) ‘윤복희의 토크 콘서트 여러분’을 주제로 전도집회를 연다. 길공동체, SNS공동체, W공동체는 하반기에 맞춤전도집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 강남A, 서초B공동체 ‘1다락방 1사역’

충남 당진 정곡교회, 화성M센터 방문

공동체별 1다락방 1사역이 풍성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강남A공동체와 서초B공동체가 1다락방 1사역을 실시했다.

강남A공동체는 충청남도 당진 정곡교회를 찾아가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해간 도시락과 간식을 정곡교회 성도들과 나눴다.

홍종화 다락방장(비전다락방)은 “어르신들께서 자식처럼 따뜻하고 살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고맙다”

고 말했다.

서초B공동체는 화성M센터를 방문했다. 경기도 화성시 인근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전도지를 나눠 주고, 주변건물에 전도포스터를 게시했다. 이주민들과 음식을 나누기도 했다. 서초B공동체는 화성M센터, 안산M센터, 김포M센터를 중심으로 매월 1회씩 순별로 1다락방 1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 권찬송 기자

## 양재 화장실 개보수 공사 5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양재 온누리교회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5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재 온누리교회 화장실 사용이 제한된다.

5월 8일(화)부터 6월 9일(토)까지는 본당 2층 여자화장실과 본당 3층 남자화장실, 6월 9일(토)부터 8월 25일(토)까지는 지하 1층 화평을 양 옆 남녀 화장실을 순차적으로 제한한다. 본당 화장실 공사기간 중에는 지하 1층 화장실 및 원형커피숍에서 지상주차장으로 가는 출입문 옆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 서대문공동체 ‘자녀 축복’ 행사

서대문공동체가 어린이날을 앞둔 지난달 28일 서대문구 아크몰에서 ‘자녀 축복’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대문공동체 소속 성도들의 자녀 15명이 참석했다. ‘자녀 축복’ 행사는 찬양, 기도, 말씀, 어린이들을 위한 축복기도, 레크리에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리교회 콘서트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영성훈련> 저자들의 생생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2-2078-3264

## 바이블칼리지 ‘기독교 영성훈련 이야기’

5월 17일~6월 21일 오후 2시 서빙고 콘서트홀

두란노바이블칼리지에서 한국 교회 현실에 맞는 기독교 영성 훈련을 제안하는 ‘기독교 영성훈련 이야기’ 세미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5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6주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서빙고 온누

## “다시 하나님이 믿어졌요”

대학부 희망노트, 명지대 학생 2,623명 참석

대학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대학생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희망노트’를 개최했다.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60주년채플관에서 막 오른 맞춤전도집회 ‘희망노트’에는 대학생 2,623명이 참석했다.

희망노트는 대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희망노트에 참석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대학생이

590명, 기독교를 진지하게 생각해볼겠다는 대학생이 674명이나 된다.

최성민 목사(대학부 담당)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희망노트에 참석한 대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조민호 학생(기계공학과)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는데 희망노트를 통해 다시 하나님이 믿어졌다”고 고백했다.



## NGO 더멋진세상 업무협약식

세계태권도연맹,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와

NGO 더멋진세상(Better world)이 지난달 24일 WT서울본부에서 세계태권도연맹(WT),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GCS International)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NGO 더멋진세상 CEO 김광동 장로, 김창욱 사무총장, 최진혁

코디, 세계태권도연맹 조성원 총재, 노희수 부장, 밝은사회클럽(GCS) 허종부 총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맺은 세 기관은 앞으로 해외 구제사업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협력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 러브소나타 샷포로 25일 앞으로

결기대회, 피금식기도 등 막바지 준비

러브소나타 샷포로가 25일 앞으로 다가왔다. 러브소나타 샷포로는 5월 30~31일 와쿠와쿠릴리데이홀에서 막 오른다. 샷포로 현지 실행위원회와 한국 러브소나타 본부는 행사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샷포로 현지에서는 총 3회에 걸쳐 결기대회를 실시했다. 실행위원회는 총 10차례 진행됐다. 현재까지 53개 협력교회가 모였다. 러브소나

타 서울 본부도 행사준비에 분주하다. 사론데코팀과 봉사자들은 일본인들이 쓸 화관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서빙고 온누리교회 미션홀에서 만들고 있다. 목회자와 스태프들은 하루 세 번 릴레이 피금식기도를 하고 있다. 온누리장로중보기도회도 러브소나타 샷포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기도로 힘을 보태고 있다.



샷포로 기 · 도 · 제 · 목

- 5월 7일(월)
- 5월 8일(화)
- 5월 9일(수)
- 5월 10일(목)
- 5월 11일(금)
- 5월 12일(토)
- 5월 13일(주일)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참석하는 일본인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넘치도록 잘 준비되어서 행사가 예정된 대로 진행되기를 이제훈 목사님과 강사진들이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한일 스태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 되도록 행사 당일 날씨와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러브소나타를 통해 샷포로 지역의 영적 부흥이 이뤄지도록

## ■ 중국어예배를 섬기며



/ 김창무 집사(중국어예배 운영위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 중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중국어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호기심과 선교적 사명이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 중국어예배에서는 중국에 대한 마음이 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중국어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드린다. 중국어예배에서는 중국에서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과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중국인 직장인들, 결혼이주민들, 중국을 마음에 품고 있는 한국인 등 약 200명 내외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1부 예배 후에는 콘서트홀에서 조별 나눔과 성경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

중국어예배는 온전히 중국어로 진행된다. 하지만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가 서툴거나 전혀 못하는 분들도 참석해서 예배드릴 수 있다. 중국어 수준이 초보이거나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중국어 성경공부도 할 수 있다. 나도 처음에는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하고 왔다가 중국어 찬양이 얼마

## “중국어예배에 오세요”

나 은혜롭고 좋단지 계속 참석하게 됐다. 처음에는 중국어 설교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통역기를 사용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인들과 일상적인 인사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인 전도사님의 도움을 받아 중국어로 대표기도도 했다.

중국어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교만과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믿음생활을 깨뜨리게 되었다. 도전받고 나의 믿음을 돌아보며 올바른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다. 중국어예배 총무와 팀장으로 어려움을 섬기는 과분한 은혜도 누렸다.

중국어예배의 사역 방향은 한국에 와 있는 중국 유학생에 대한 전도와 양육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인 신학생들이 전도사와 사역자로 훈련받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Acts29 비전을 이뤄가기를 소망한다.

중국어예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중국어로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나눌 수 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중국어예배에 일단 한 번 와보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 ■ 대학청년부 어머니기도회 간증



/ 임재경 팀장(대청 어머니기도회)

## 쉬지 않고 기도하는 어머니들

나는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하나님께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모임에 참석하고 싶다고 기도했다. 그 기도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대학청년부 어머니기도회 안내문을 발견했다. 한걸음에 찾아갔을 때 그곳에는 6명의 어머니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내 아들은 외국에 가 있지만 나는 아들과 동년배인 대학청년들을 품고 싶었다.

하나님께서 대학청년부 어머니기도회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다. 지난 3월 어느 금요일 아침 목사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다. 바로 SNS공동체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지난해 SNS공동체가 예배 장소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했다. 좁은 장소가 아니라 넓은 장소에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다. 그러면서 대학청년부의 큰 부흥을 또 한 번 보기 원한다고 간구했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대로 SNS공동체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교회 안이 아닌 외부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더 기도하도록 마음을 부어주신 적이 있다. 마침 대학청년부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회 이름을 정

하기 위한 기도요청을 받았다. 그 모임의 이름이 ‘홀리스타’로 정해졌다. 대학청년부 어머니기도회에서 대학청년부에도 새벽기도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다.

또 청년들의 결혼 매칭사역이 시작되었다며 기도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매 기수가 진행되면서 결혼까지 이어지는 기쁜 소식을 듣고 있다. 하나님께서 대학청년부 어머니기도회를 통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하셨다. 지금은 매월 행사들과 각 공동체별 기도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대학청년부 어머니들에게는 방향이 없다. 100팀이 넘는 청년들이 여름 아웃리치를 가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아웃리치 일정표를 붙들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역들을 발견하고 아웃리치 영역이 넓혀지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감사하고 흐뭇한 마음이 든다.

나의 시야를 넓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대학청년부 어머니기도회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이 사실을 대학청년들이 꼭 기억하며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 ■ 대표MC로 섬기며



/ 김종현 형제(Pole2공동체 대표MC)

나를 끊임없이  
낮추시는 하나님

내가 대학로에 위치한 ‘이룸’에 오게 된 이유는 학기 중에 취업을 했기 때문이었다. 학교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주일 오후에 회사에 출근해야 했다. 그래서 대학부 오전예배인 Pole2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

Pole2공동체 목사님 설교에는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와 “청년의 때에 제발 죄를 짓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가 함께 있었다. 그 메시지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키도록 인도했다.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청년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Pole2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는 매번 은혜가 있었다. Pole2공동체는 나의 20대를 함께 보내고 싶은 공동체다. 나는 목사님께 “어떤 역할이든지 공동체 리더십으로 섬기고 싶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기다렸다.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나를 Pole2공동체 11기 대표 MC로 부르셨다.

Pole2공동체 대표MC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낮추시는 것을 경험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부분을 사용하셨고, 나의 잘못된 태도를 고쳐주셨다. Pole2공동체에

속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도록 인도하셨다. 더불어 공동체에서 진행되는 LTC, 블레스, ODO, 아웃리치, 예배장소 이전 등을 준비하면서도 결과보다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모두 함께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최근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는 사건이 있었다. 주어진 사역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 기울이지 않는 나의 교만한 태도를 발견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리더십들 간의 불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다.

Pole2공동체 대표MC로 섬기면서 섬김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나누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치는 순간이 있다. 그때마다 격려와 위로를 해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멘토님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분들과 교체하는 시간이 나에게 정말 큰 안식이다. Pole2공동체는 에너지가 넘치는 공동체다. 그 넘치는 에너지로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

## ■ 강동 젊은부부학교 수료 간증



/ 최선영 성도(강동 온누리교회)

##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부부

2004년 결혼하고 남편이 섬기는 양재 온누리교회에 오게 됐다. 당시 남편은 여호수아공동체 예배를 섬기고 있었다. 나도 자연스럽게 여호수아공동체 예배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됐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첫째 아이를 너무 빨리 갖게 됐다.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과 집안일 등 다양한 일들이 생겼다. 그 과정에서 남편과의 관계로 인해 많이 힘들었다.

평일에는 회사일, 주말에는 교회일로 바쁜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다. 남편이 가정을 돌보고 챙기는 일에 소홀한 것 같아 늘 서운했다. 남편은 여름휴가는 아웃리치에 쓰고, 주말이면 순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휴일에는 공동체 행사나 부서 엔티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뭔가 모를 불안한 마음도 있었다. 기쁨과 감사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에 안 좋은 감정들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강동 온누리교회를 섬기게 됐다.

강동 온누리교회에서 1기 젊은부부학교가 열리게 되어 참가하라는 권면을 받았지만 별 관심이 없었다. 담당목사님께서 신중해 주서

서 반강제로 참여하게 됐다. 젊은부부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가정 원리를 배우고, 서로를 알아가고, 나만의 고민인 줄 알았던 것들이 많은 부부들의 공통적인 고민거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아이들 없이 조용히 강의를 듣고, 부부가 단 둘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세족식이다. 남편이 나에게 “혼자 외롭게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동안 내가 외로운 줄 모르고 살았다. 남편에게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나의 무지함과 무뚝뚝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젊은부부학교의 영향으로 우리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늘었다. 작년에는 가족 여행도 다녀왔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부부가 되고 싶다. 이번 달 26일에 열리는 5기 젊은부부학교에서 조장부부로 섬기게 되어 감사하다. 남편과 우리 가정에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된다.

문의: 010-2022-8181

## 장로칼럼

###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임현태 장로  
(남양주 온누리교회)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에서 인도의 아름다운 결혼 풍습을 소개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신부의 여자 친구들이 음악 소리에 맞춰 신부를 신랑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풍습이 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도와 네팔인들을 섬기는 힌두권 선교가 어느덧 14년이 됐다. 처음에는 인도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네팔인까지 확대됐다. 1년 동안 섬김과 헌신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문화를 알아가고, 대체의학도 공부했다. 함께 동역할 사역자들도 모집했다.

우리는 비닐하우스를 찾아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왔다. 족욕과 발 마사지로 그들을 섬기고, 인도에서 요리사로 일했던 친구로부터 인도 카레와 난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면서 매주 기쁨으로 교제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재정도 채워주셨다. 사역자들이 매월 얼마씩 회비를 내고 외부에서 후원을 받기도 했다. 한 사역자의 친구는 불교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 하는데 쓰라며 매월 얼마씩 헌금을 냈다. 몇몇 지체들이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에서 온 결혼이주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교회에 초대했다. 그들에게 요리, 미술 등 각종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함께 예배도 드렸다. 7년 전부터는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원에도 방문했다. 함께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이미용봉사로 섬기고 있다.

다문화사역이 남양주 온누리교회의 중요한 선교사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지금은 경기도

구리시의 다문화지역아동센터들과 협력하며 9개 교실을 개설했다. 매주 토요일에는 탁구, 댄스, 악기 등 각종 과목을 배우기 위해 70여 명의 결혼이주여성들과 그 자녀들이 남양주 온누리교회에 오고 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기대한다.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체들이 이 사역에 함께 하고 있다. 1다락방 1사역을 통하여 매주 음식이나 운전봉사로 섬기는 지체들도 있다. 또 의료사역으로 섬기는 의료팀을 통하여 이주민들의 아픔이 치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으로 흘러가고 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는 인도와 네팔에서 온 40~50여 명의 형제자매들이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인도어 예배와 네팔어 예배를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히고 있다. 이번 부활절 예배에서는 두 명의 형제자매가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식을 가졌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행 13:47).

땅 끝은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다. 바로 그곳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서쪽으로 전파돼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무슬림권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인근에 있는 일본, 중국, 북한 땅이 땅 끝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순례자이고 나그네이다. 우리의 인생은 본래 있었던 고향에 돌아가기 위한 여정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에 와 있는 나그네들이 복음을 듣고 본국에 돌아간다면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

인도 결혼식에서 신부의 친구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이곳에 와 있는 나그네들을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다 시 한 번 굳게 다짐한다.

## 권사칼럼

### 노리마쓰 선교사와 러브소나타



서승옥 권사  
(서빙고 일대일사역팀)

지난주 외국어일대일사역자학교 일본어팀이 노리마쓰 마사야스 선교사의 선교지인 수원 동신교회에 다녀왔다. 노리마쓰 선교사는 일본인 최초의 해외선교사다. 1897년 한국에 들어온 노리마쓰 선교사는 동신교회를 중심으로 경기도 일대에서 선교를 했다. 노리마쓰 선교사가 한국에 온 이유는 청일전쟁 이후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선의 비극적 상황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신앙적 결단을 하고 조선에 왔다.

1897년 조선 땅에 온 노리마쓰 선교사는 수원 동신교회 뒤뜰에 묻혀 계신다. 노리마쓰 선교사의 부인은 어린 아이 4명을 남기고 한국에서 풍토병으로 돌아가셨다. 선교 온 지 10년 만이었다. 노리마쓰 선교사는 오직 복음의 씨를 뿌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묵묵히 전도했다.

2007년 온누리교회의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소나타가 시작되었다. 노리마쓰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 선교한지 꼭 110년 만에 일본 동경에서 러브소나타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동경 러브소나타를 시작으로 10년 동안 러브소나타 행사에 여러 번 참가했다. 또한 일본어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기 위해 외국어일대일사역자학교에서 훈련 받고 있다. 외국어일대일사역자학교가 시작된 2015년부터 4년 동안 수강생과 스태프로 훈련 받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 한없이 부족함에도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오신 목사님과 오비히로 교회의 사모님과 함께 일대일

제자양육을 했다. 군마와 마츠모토에 계신 교포 목사님과 사모님과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러 간 적도 있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 주셨다.

하용조 목사님이 일본을 짝사랑하시며 러브소나타를 하셨던 것처럼 110년 전 노리마쓰 선교사가 한국을 향해 불렀던 하나님의 러브소나타를 나도 작은 목소리로나마 부르고 있는 것 같다.

하용조 목사님이 왜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러브소나타를 결정하셨을지를 참 많이 생각했었다. 나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 목사님은 “우리에게 피해자의 교만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일본인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셨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니까’라는 답을 찾을 수 있었다. 거기다 노리마쓰 선교사의 이야기까지 알게 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묵상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시인 윤동주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고 했다. 여기서 ‘모든 죽어가는 것’은 한국 사람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해당될까? 일본 사람도 포함된다. 이여령 선생님은 서시에 나오는 ‘모든’이라는 표현에는 우리도 일본 사람도 모두 포함된다고 하셨다.

그렇다.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러브소나타가 일본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되어 더 많은 꽃을 피우기를 바란다. 노리마쓰 선교사가 전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1%가 아니라 10%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하여 나는 5월 개최되는 삿포로 러브소나타에 갈 것이다.

## 신앙에세이



이길탁 목사  
(요셉공동체)

지난 3월 4일 오후 2시 공덕동에 위치한 산마루교회 1층 ‘공간산마루Cafe’에서 특별한 창립예배를 드렸다. 산마루교회와 온누리교회가 교파를 뛰어넘어 거룩한 연합을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40명이 들어가면 딱 차는 작은 공간에 무려 78명의 예배자들이 참석해 산마루교회 청년공동체 창립을 축하해줬다. 벅찬 감동과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작년 가을, 온누리교회 주일예배에서 아주 특별한 파송식이 있었다. 산마루교회를 섬길 헌신자들을 파송하는 예배였다. 그때 파송된 헌신자 중에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 그 청년들이 산마루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그 안에서 거룩한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산마루교회로

이동한 청년 헌신자들이 온누리교회라는 익숙한 옷을 벗고 빠른 속도로 산마루교회에 녹아들기 시작했다. 전부터 하나였다는 듯 말이다. 청년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청년 예배공동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나는 올해 초 그 일에 파송되었고 지난 1월부터 기도모임을 시작으로 3월 창립예배를 준비했다. 매주 수요일 밤은 산마루교회 청년들만의 시간이었다. 산마루교회 수요일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정까지 요셉공동체 최대흥 전도사와 산마루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면밀히 회의하며, 청년공동체 개척을 준비했다. 그렇게 시작된 청년공동체가 드디어 3월 4일 첫 예배를 드렸다. 입주의 여지 없는 예배공간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과정마다 도우셨음을 느낄 수 있었다.

공간산마루Cafe에서 드리는 청년예배에 참석하는 예배자들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또한 매주 새가족들이

찾아오고 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새가족등록 7주 과정을 4주 과정으로 압축해서 도입했다. 4주 동안 산마루교회의 역사와 정신, 영성일기를 배우고, 5주차에 반(온누리교회의 순)에 파송된다. 세 개의 반은 예배를 드린 다음 영성일기를 나누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청년부가 매주 목요일 순장모임을 통해 다가올 예배를 준비하듯 산마루교회 청년 리더십들도 수요일 밤에 모여 주일을 준비한다.

사사기 1장에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죽은 여호수아의 후임자를 두고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온다.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삿 1:1).

이 질문은 ‘과연 누가 우리의 리더입니까?’라는 심각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가 갈 것이다. 내가 이 땅을 그들 손에 주었다”(삿 1:2).

질문의 심각성에 비해 하나님은 대답은 너무도 상식적이다. 하나님의 상식적인 대답 직후 유다 지파가 한 행동이 놀랍다.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찾아간다. 가장 강한 지파가 당시 규모나 전력적으로 가장 약한 지파인 시므온 지파를 찾아가 함께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려고 손을 내민다. 시므온 지파가 그 손을 잡는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가나안과의 모든 전쟁에서 10개 지파는 패배했지만 유독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손을 잡고 올라간 전쟁에서만은 완승을 거두게 된다. 유일한 승리의 기록이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연합은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한 수였다. 결국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연합은 두 지파 모두를 살렸다. 그 아름다운 연합의 사건이 매주 주일 공덕동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연합은 온누리교회와 산마루교회에 큰 생명의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온누리교회와 산마루교회의 아름다운 연합으로 태동된 산마루 청년공동체가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

## 아름다운 연합



## 주일강단

〈3면에 이어〉

# 관계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롬 14:15).

##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

교회마다 각양각색의 절차가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존중하면 됩니다.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질서인지, 어떤 본질인지를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 주는 일에 힘쓰시다”(17~19절).

하나님 나라는 문제보다 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주변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에 집착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를 가지고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반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 신발을 신느냐, 신지 않느냐? 가운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부를 것인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의 상태를 향해 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고, 결국 화평을 이루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라는 개념은 어떤 법과 통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모인다고 나라가 됩니까? 아닙니다. 나라라고 할 때는 법과 통치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스스로가 그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합의된 법을 따라 지킵니다. 법정에 가서 “나는 이 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법을 싫어합니다”라고 아무리 호소해

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법에 맞춰야지 법이 우리에게 맞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 우리가 맞춰야지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변적인 문제에 대해서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한 형제자매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사람이라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죽으실 만큼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포기하고, 양보하고, 신이라고 하면 신고, 입으라고 하면 입고, 입지 말라고 하면 입지 말고, 서로 화평을 이뤄가면서 서로를 세워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세 가지 단어가 나타납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왜 이 세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 단어가 차례대로 나오는 로마서의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롬 5:1~2).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이 연이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나라입니다.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의로워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주장과 자기 권리를 내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에 자랑할 것이 없고,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멸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왔습니다. 오직 은혜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화평은 의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값없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화평이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힘이 반쳐줘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달리 값없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자유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화평과 자유는 항상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평화가 없습니까? 왜 마음속에 정죄와 비난과 다툼과 판단이 계속됩니까?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고집, 내 방식에 맞지 않으면 불편해 합니다. 자신만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나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주시라고 하면 받아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는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기쁨이란 의와 화평을 거쳐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의와 화평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를 세우는 일에서 기쁨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일과 우리의 일로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문제, 어떤 제도의 문제, 어떤 문화의 문제로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과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온누리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적인 문제에 목숨 걸고 싸우지 마십시오. 주변은 주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변적인 문제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형제자매를 근심하게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화평과 기쁨을 추구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 화평, 의롭게 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기교



이동엽 원장  
(서초D공동체, 참포도나무 병원)

이번 학기에 ‘OBC 성경통독’ 수업을 듣고 있다. 속제로 성경을 읽던 중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씀이 와 닿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출 32:9).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 여차 하면 내가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 모르니 말이다”(출 33:3).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 내가 잠시라도 너희와 함께 가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지도 모른다...”(출 33:5).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제발 우리와 함께 가 주십시오. 저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악과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쁨으로 받아 주십시오”(출 34:9).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셨다. 왜 하필 ‘목이 곧은’이라는 표현으로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지적하셨을까? 나는 그것이 궁금했다.

목은 구조상 무거운 머리를 들고 있는 몸통과 연결되는 비교적 가느다란 연결통로이다. 목은 중요한 뇌신경을 보호하는 두개골과 몸의 기둥이 되는 척추체 타위를 연결하는 상부 연결 지지대인 경추부(목척추)가 있는 곳이다. 목은 머리와 몸통을 이어주는 각종 신경, 혈관, 림프 등이 지나가는 통로이고, 숨을 쉴 때 호흡

이 지나가는 숨길이가 되기도 한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살아있다’는 뜻을 다른 표현으로 ‘목숨’이라고 하는가 싶다. 그래서 머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목의 중요성을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다.

원래 목(경추)의 가장 좋은 모양이나 자세는 전만(앞쪽으로 만곡 된 활 모양, C자 모양의 각도)이다. 그런데 컴퓨터 작업(게임, 인터넷 등), 공부와 책 읽기, 스마트폰 사용, 수술, 작업 등을 같은 자세로 장시간 동안 하게 되면 전만되어 있어야 할 목의 모양이 ‘일자목’이나 ‘거북목’(역 C자 모양, 후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이사이에 자주 목을 돌려 하늘을 보고 기지개를 펴야 한다. 목 중심의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움직임으로 순환을 주변 심하게 나빠지는 경추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여기서 문득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다. 나 역시 일, 취미, 가족, 인생에만 너무 심하게 집중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 머리를 쳐박고 내 일, 내 우상만 쫓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오로지 내 신변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들이 내 인생의 금송아지가 되어 내 목을 곧게 만든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최근 장시간 수술로 인해 목이 아파 목 부분을 X레이로 찍어보았다. 여지없이 일자목이었다. 나에게도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이 비춰졌다. 눈에 보이는 것만 눈이 빠지도록 집중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시선을 하늘에 두어야 한다. 바로 그때 목이 곧은 내가 조금은 새롭게 변화되지 않을까? 치료는 의료진이 하지만 회복은 주님이 해주시리라 믿는다.

## 목이 곧은 백성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홍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년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애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홍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홍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홍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정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재)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홍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를

온누리가족 나무동생(공원모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온누리입양가족(제이홀) 입양세미나

일시: 5월 20일(주일) 오후 5시~7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꿈이홀

대상: 입양을 준비 또는 관심 있는 분

문의: 오정화 팀장(010-2049-8210)

CMN 드림팀 해외 아웃리치 모집

일시: 8월 8일(수 밤)~13일(월 아침)

장소: 스리랑카 해튼(165만원)

모집: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문의: 010-4230-1474, 010-2586-5447

로그온 IT사역팀 토크 & 찬양 콘서트

예배: 매주(화) 오후 7시 30분

특별강연: 5/15 핸디카 이상산 대표 <그들

과 함께: IT로 여는 통일의 길>

찬양콘서트: 5/29 여름을 여는 가로수 콘서

트 (강종현· 주일 4부 워십과이어 성가사)

장소: 가로수워십(강남구 압구정로10길 43)

문의: 이경희 사역자(02-3215-3651)

CMN 마하나임 국내 아웃리치 모집

일시: 5월 27일 오후 2시~6시

장소: 남양주 온누리 교회

사역: 의료사역(양방 & 한방), 미용사역 등

문의: 010-8898-3719

\* 서빙고 온누리교회 오전 10시 30분 버스

출발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송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 와일드 형제의 정글스토리 '컬쳐쇼크'편

인도네시아 정글에서 모와노 부족과 함께 하며  
복음을 전하는 와일드 형제의 흥미진진한 정글 탐험

방송시간 5월 11일(금) 오후 6시

다시보기: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http://www.cgntv.net))



다음 세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 CGNTV 가정의 달 특집 프로그램

CGNTV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문의 02-796-2243



##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포천 새말교회'편

유년부 아이들이 성장해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기까지,  
다음 세대와 함께 자라나는 새말교회 이야기

방송시간 5월 7일(월) 오전 11시 30분

